

민주 호남 지방선거 혁신공천 물 건너가나

쇄신 드라이브 현실정치 벽 못 넘고 '그들만의 리그' 전략 우려
예비 후보들, 치열한 지역위원장 출서기 경쟁에 금품제공설도
여성·청년 공천 가점·전략 공천 등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방선거 기획단 가동 등을 통해 청년·여성 30% 공천 등 쇄신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지방선거 공천이 한 달도 남지 않은데다 기초·광역의원들은 물론 기초 단체장 경선까지 실질적인 대결 구도가 이미 형성, 혁신의 칼이 들어설 자리가 녹록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살을 도려내는 과감한 혁신 의지 없이는 민주당 독점 구도인 호남은 지역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 지방선거 기획단은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6·1 지방선거에서의 혁신 공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혁신 공천에 대한 의지는 그리 강하지 않은 실정이다. 광역·기초의원 공천에서 청년·여성 할당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다.
또 기초단체장 경선은 이미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여성·청년 공천 카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혁신 공천에 나서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 호남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에서 약세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경선은 사·도당에서 관리, 중앙당이 나서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민주당의 혁신 공천 드라이브는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갯잔 속에 태풍'에 그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뒷받침 호남의 경우, 여성·청년 30% 공천률은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 전남·북의 일부 광역·기초의원 공천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청년 공천 등도 지역위원장들의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무늬만 혁신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에서는 지역위원장 눈에 들기 위한 예비 후보들의 출서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제공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초·광역의원 경선이 권리당원 100%, 기초단체장 경선이 권리당원 50%+일반시민 50%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권리당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위원장은 후보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배부된 권리당원 명부를 특정 예비 후보들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경선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 단체장과 지역위원장의 '짚짜미 공천 공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도당에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극복해 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중앙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 공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 기관에 기소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장 및 예비 후보들에 대해 과감한 공천 배제에 나서서 한편, 청년·여성 후보들에게 현실에 맞도록 가점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역 기초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경우에 한해, 호남 지역 1·2곳은 상징적으로 청년 전략공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기존 기득권 경선 구조를 깨기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난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하고도 지방선거에서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안주한다면 호남 민심의 이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공천 혁신은 민주당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문 대통령·윤 당선인 허심탄회한 대화

대선 19일만에 지각 만찬회동

"저기 매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난 회동을 시작했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만남이다.
이전까지는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 9일 만의 회동이 가장 낮은 신·구 권력의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만찬장인 상춘재 앞 녹지원에 먼저 나가 윤 당선인을 기다렸다. 문 대통령이 먼저 나가서 상대를 기다리다가 '에스코트'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윤 당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사를 마친 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나란

히 상춘재 앞 잔디밭인 녹지원을 가로지르며 걷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동하면서 녹지원 안에 있는 소나무, 또 녹지원 옆에 있는 여민관(비서동) 건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만찬에는 레드 와인인 준비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반주'로 곁들이며 별도의 의제 없이 다양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이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비롯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도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 등을 두고도 의견이 오갈지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토부, '화정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엄중처벌 요청

감리업체 영업정지 1년 처분 요구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 등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

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를 토대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되면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 이후 처음이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서울시가 기존에 등록말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

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서울시의 법령 오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포닌 추출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3일